

# 악귀 내쫓고 청정도량 외호

월 2회 연재

##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15

### 신중

사찰엔 온갖 신들(神衆)로 가득차 있다. 사천왕을 비롯해 제석천, 법천, 금강역사, 산신 등... 왜 거룩한 제불보살님을 모신 도량에 신들을 모셨을까?

(땅의 신), 조왕(부엌과 불의 신), 성주(가축의 신) 등이 있다고 믿어왔다. 여느 신들과는 달리 수호보다는 심판의 의미를 갖는 열라대왕도 불교의 신이다. 열라국에 머물면서 죽은 이의 영혼을 다스리고, 생전의 행동을 심판하여 상벌을 주는 일을 주재한다. 야차(夜叉)는 열라대왕의 출개로 지옥에서 죄인을 다스린다. 불교의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귀면문이 새겨진 불국사 문고리(사건 왼쪽)와 황룡사지 출토 막새기와.



◊쌍계사 신중탱화. 도량과 법사를 수호하는 신중들을 묘사했다.



◊신중의 하나인 금강역사는 절 입구에 서서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경주 석굴암의 금강역사.

### 방일한 마음 경책·도량 지킴이 역할

열라대왕 죄업 심판 상벌주는 일 맡아 신 중 불법·법사 호위하는 선신

#### ■귀면문(鬼面紋)

불국사 문고리와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막새기와의 귀면문을 통해 잡귀를 몰아내는 방위잡귀(防避雜鬼) 또는 벽사로서 불교에 차용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괴이성과 수성(獸性), 주술적 조형성이 강조되었다. "그 목적은, 인간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 사악한 것을 억제하고 나태함과 권태로움을 쫓으며, 흥을 돋우어 신성한 영역을 보존하고, 그 신성성으로 상징되는

마음의 중심에 들어설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다." (이부영, 한국 문화상징사전) 귀면문의 원형은 중국 고대사회의 조신제(祖神祭) 가운데 지하의 망령을 달래는 원시 주술적인 진혼(鎮魂) 의례 때

쓰인 제기에 그려넣은 도철문에서 비롯된다. 상상의 동물인 도철은 눈이 크고 이빨이 튀어나온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다. 시각이 예민하여 어떤 사악한 마귀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귀면문은 중국의 그것처럼 과기스럽거나 공포감을 자아내기도는 인간적이고 해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에 지니고 다니는 장신구에 새길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불국사 황룡사지 사천왕사지 외에도 평양 금강사지, 부여

가림사지, 발해 용천부 제1사지 등에서 귀면문이 출토됐다. 한편 귀면기와를 도깨비 기와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 최근 발표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제석천·법천·금강역사

법회가 있을 때마다 도량과 법사를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선신중(善神衆)으로 불교의 의식(신중탱화)과 조형물(신중탱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중에는 제석천 법천 사천왕 금강역사 팔부종이 모두 포함된다. 인도 재래 토속 신앙의 토착신들이 불교에 흡수되어 불교화했다. △제석천: 고대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전부터 부처님을 호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주 석굴암의 제석천상이 가장 유명하다. △법천: 육계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청정하게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신이다. 손에 불자(拂子)를 들고 부처님의 설법 때마다 빠짐없이 듣는다고 한다. 조각의 예가 많지 않는데 석굴암 법천상이 대표적이다. △금강역사: 인왕(仁王) 또는 이왕(二王)이라고도 부른다. 절문 좌우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것이 본래 임무로서 대개는 상의를 벗은 채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고 있거나 금강저를 들고 있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석굴암, 분황사, 장항사 등의 인왕상이 대표적이다.

△신중탱화(神衆탱화) 불교의 온갖 호법신을 묘사한 탱화로,

### 형상 무섭지만 재앙막는 수호신

#### ■사천왕은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어 사천왕에 낯선 사람은 흥칫 놀라고 만다. 죄지은 양 몸을 움츠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사천왕은 세상의 온갖 재앙을 소멸케 해 인락을 주겠다는 서원을 담고 있다. (금광명경·金光明經) '사천왕품'에서 사천왕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만일 이 나라에 해로운 일이 있거나, 원수가 국경을 침노하거나, 흉년되고 병이 도는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적에 어떤 비구가 이 경(金光明경)을 받아 지니면 가지가지 재변을 소멸케 하겠나이다."

사천왕 중 동쪽을 지키는 이는 지국천왕(持國天王)으로, 선한 이에게 상을 내리거나 악한 이에게 벌을 주어 국토를 수호한다. 서쪽을 지키는 신은 광목천왕(廣目天王). 죄인에게 벌을 내려 매우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가운데 도심(道心)을 일으키는 서원을 행하고 있다. 남방은 증장천왕(增長天王)이 지킨다. 만물이 태어나는 덕을 베푸는데, 오른쪽으로 몸을 잡고 있다. 북쪽은 다문천왕(多聞天王)이 지킨다. 항상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도량을 지킨다. 이들은 모두 건달바 용 나찰 등의 무수한 신을 권속으로 거느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동방지국천왕, 서방광목천왕, 남방증장천왕, 북방다문천왕. 사진은 통도사 사천왕.

대개 법당 중심부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벽에 봉안한다. 신중탱화를 봉안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제석천 법천 사천왕 금강역사 팔부종만 그려졌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재래 토속신앙의 신들도 함께 그려 넣어 불교의 관용적이고 역동적인 신앙관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조선시대에 불교가 처음 민간신앙과 융합되어 보다 많은 신들을 수용하게 되어 104위에 이르게 된다. 신중탱화는 화엄의 중심 신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된다. 대예적금강신을 주축으로 한 탱화, 제석천과 대법천·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한 신중탱화, 제석천과 대법천을 중심으로 한 탱화, 제석탱화라고도 한다. 쌍계사의 <제석천탱화>가 가장 유명하다.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좌우 상하에 팔부신장과 십이지신상 등 신장 만을 묘사한 신중탱화 등이다.

#### ■사천왕도량

사천왕을 본존으로 하여 개최하는 기원법회, 사천왕의 보호를 받아 적병을 물리친다는 진병도량(鎭兵道場)의 목적에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자주 열렸으며, 경주에 있었던 사천왕사는 사천왕도량의 본산이었다. 지금은 거의 불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안주 송광사에서 매일 초하루 사천왕도량을 봉행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 송광사에 머물던 승군들이 사천왕에게 호국호법의 기뢰를 빌던 전풍이 3백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정월 첫 갑자 일에는 사천왕 대불공이 행해진다.

#### ■산신(山神)

산신은 우리나라 고유의 민간신앙, 즉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 가축의 번성, 무병장수 등을 기원하는 원초적인 숭배의 대상이었다. 불교와 융합되면서 산신각과 산신탱화로 구체화되었는데, 산신은 호랑이와 신산의 종모를 한 노인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지금도 산신각에 아물 남기와 재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산신은 산중생활의 외호신(外護神)으로 성격이 더 강하다. 계룡산 신원사의 중약당(中岳堂)은 불교와 산신신앙이 결합한 대표적 상징물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IMF를 이겨내는 투자의 맥

어디가 좋을까? 사찰, 전원주택,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고민끝~!

청산건설팅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보에 귀의하옵고  
상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전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부지  
안내와 개발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청산건설팅 대표 안 태진입니다.  
이번 국내에 닥친 I.M.F. 한파는  
부동산 업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불황속에서 매우 우수한 상품들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50%이상  
싼 가격의 매물이 쏟아져 우리 불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만한 땅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CHUNG SAN 컨설팅  
02)420-5474 ~ 5/011)213-4594

부지 1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262-1번지 외 8필지  
■총평수 : 6,422평(준농림, 일부 전용허가됨)  
■지 목 : 전, 답, 토림  
■특 징 : 서울 지하철 잠실역에서 약 40km 속퇴근가능  
맑고 깨끗한 개울이 흐르고 저수지를 접한 땅  
주위 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여 있음  
■용 도 : 교육관부지, 청소년 수련장부지, 노인복지회관부지  
전원주택을 짓고 농장하며 500평, 1,000평, 1,500평, 2,000~평단위로  
매수하고 공부하실 분.  
■부지상 황후 2~3년 후 IMF에서 벗어나면 2~5배의 투자성이 확실한 땅  
■시 세 IMF 전 - 23만원 ~ 30만원 거래  
IMF 후 - 17만원 ~ 20만원 거래  
- 현재 받고자 하는 금액 10만원 ~ 15만원

부지 2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 121번지  
■총평수 : 2,995평(일부 전용허가됨)  
(준농림 + 보존임지) 정남향, 출퇴근 가능, 저수지 접한 땅.  
- 급매 평당 9만원

부지 3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149번지 산 149-1번지  
②필지 ② 보존임지  
■총평수 : 4,170평(필요시 준농림 특해서 드림)  
■용 도 : 과수원, 평, 사슴 목장, 농어양도 가능 4m 진입로 확보  
- 급한 매물 평당 3만원

▶기타 더 자세한 관계서류 및 궁금사항은 전화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드립니다.